

# 朝鮮朝 歷代王의 壽命과 그 死因

洪 性 鳳

(前高麗大學校 醫科大學教授)

## 《目 次》

I. 序言	Ⅲ. 王들의 平均壽命과 死因의 類型
Ⅱ. 歷代王의 壽命과 그 死因	

### I. 序 言

近年 生活水準의 改善에 따른 保健環境의 向上과 이와 더불어 醫學의 전반적인 發展은 平均壽命의 괄목할만한 延長으로 이어졌다.

筆者는 人間의 原初的인 염원이 壽福康寧일 지언데 우리나라 近世紀 百姓들의 壽命과 그 死因을 밝혀 봄으로써 그 時代를 산 우리들의 生活水準과 保健環境을 間接적으로나마 가늠할 수 있으리라는 期待에서 關聯資料가 比較적 信憑性이 높고 잘 保全된 王朝實錄을 기초로 李朝歷代王의 壽命과 그 死因을 究明해 보고자 하였다. 統治者의 生活環境은 그 時代의 一般百姓의 그것과는 比較할 바 아니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近世紀의 保健水準을 가늠하는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思料된다.

李朝實錄의 史料의 客觀性은 역성혁명으로 이룩된 建國初期와 中葉에서 반복된 死色黨禍 등의 政治論爭에 관한 事件이 아닌 王의 健康 또는 病患에 관해서는 대체로 歪曲의 可能性이 적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歷代王의 壽命과 病患의 經緯에 관한 資料는 주로 王朝實錄에 의 존하였는데, 年齡은 太陰曆에 따라 滿으로 計算하였다.

### Ⅱ. 歷代王의 壽命과 그 死因

#### 1. 太祖

李成桂는 高麗 忠肅王 4年 10月 11日(1335) 和寧府에서 태어나<sup>1)</sup> 太宗 8年 5月 24日(1408)에 歿하니<sup>2)</sup> 그의 天壽는 滿 72歲 7個月이었다.

1. “至元元年高麗忠肅王四年乙亥十月十一日己未誕 太祖於和寧府私第”, 太祖實錄, 1卷, 5面

2. “壬申(太宗 8年 5月 24日) 大雨太上王薨于別殿, 上徒步趨至進清心元不能燕下舉目再視而葬”, 太宗實錄, 15卷, 29面

註: 괄호안은 筆者의 註記임.

太祖는 1398年 8月 健康이 좋지 않음을 憑藉, 그해 9月 王世子에게 讓位<sup>3)</sup>한 것으로 기록된 바, 실지는 李芳碩을世子로 冊封한데 不平을 품은 李芳遠의 1次 王子의 亂<sup>4)</sup>인 戊寅靖社에 緣由된 것으로서 그의 煩悶과 葛藤은 짐작할 수 있겠으나 末年까지 健康을 크게 害친바 없었다. 太宗 8年 1月 19日(1408)<sup>5)</sup> 腦卒中이 돌발 5個月 동안 太宗의 看病과 罪囚의 辭免<sup>6)</sup>, 僧侶의 治癒祈禱<sup>7)</sup>, 定宗의 佛供<sup>8)9)</sup>도 効驗없이 太宗 8年 5月 24日(1408) 昇遐하니 朝鮮王朝中 두번째로 長壽한 王이다. 現代醫學도 腦溢血, 中風에 대한 特效藥이 별로 없드시 鬪病期間 5個月 동안 投藥에 관한 記錄이 전혀 없다.

## 2. 定宗

定宗은 高麗 恭愍王 6年 6月(1357) 太祖의 둘째아들로 태어나 戊寅年 9月(1399) 22歲 때 即位하였으나, 이듬해(1400) 中風을<sup>10)</sup> 病자하여 太宗에게 讓位하고 그후 20年間 한가롭게 消日하다 1419年 9月 20日 졸연 得病하니 산

천에 祈禱<sup>11)12)</sup>도 효험없이 위독하여 西江에서 仁德宮으로 옮겨<sup>13)</sup> 9日 동안의 鬪病끝에 世宗 1年 9月 26日(1419) 昇遐<sup>14)</sup>하였다. 62歲 3個月의 生涯이었다.

履病期間이 9日間이란 短期間인 점과 43歲 당시의 讓位動機를 中風으로 病자한 것도 死因과의 連繫性을 믿개끔 하여 필경 腦溢血로 死亡하였으리라고 믿어진다.

## 3. 太宗

太宗은 高麗朝 恭愍王 16年 5月 16日(1367) 咸興府 귀주에서 太祖의 다섯째 아들로 태어나 1400年 11月 同母兄 定宗으로 부터 受禪 即位하니 33歲이었다.

51歲 때인 太宗 18年에 李明德과의 對話<sup>15)</sup>에서 “앞서부터 中風으로 治療를 해왔으나 別效果가 없으니 伊川溫泉에 다녀올까 한다”는 相讓를 한바 있고, 같은해 8月 8日 世子에게 傳位<sup>16)</sup>하면서 지팡이를 잡고 걸어나온 記錄은 輕症은 中風症勢가 있었다고 믿어진다.

3. “戊寅秋八月 太祖不豫受冊討爲王世子九月內受禪即位”, 定宗實錄, 1卷, 1面
4. 韓國史大系:朝鮮前期, 5卷, 三珍社, 1975, 30~31
5. “戊辰(1408. 1. 19) 上詣德壽宮 太上王暴得風疾, 己巳(同年 1月 20日) 上詣德壽宮以 太上王疾篤也”, 太宗實錄, 14卷, 3面
6. “命放二罪二下”, 太宗實錄, 15卷, 5面
7. “丁丑(太宗 8年 1月 28日), 于德壽宮側集僧徒百人行樂師精勤”, 上揭書, 15卷, 4面
8. “癸酉(3月 24日) 上親點香徹夜跪於佛像前燃臂十二柱”, 上揭書, 15卷, 12面
9. “壬子(5月 4日) 黃儼等至金剛山表訓寺出絹三十四充飯僧之費”, 上揭書, 15卷, 22面
10. “冬十一月恭靖王(定宗) 素患風疾退去別宮禪位于太宗, 在位三年居閑頤養二十年 壽六十三歲”, 上揭書, 1卷, 1面
11. “庚申(1419. 9.18), 上王趨辛西江問病於 老上王 上還宮以老上王病重遣人于慈悲嶺等處祈禱”, 世宗實錄, 5卷, 16面
12. “癸亥(1419. 9.21), 上詣仁德宮問疾進米百二十石以備救病之費”, 上揭書, 5卷, 18面
13. “壬戌(1419. 9.20) 老上王疾甚自西江還仁德宮”, 上揭書, 5卷, 17面
14. “戊辰(1419. 9.26) 老上王薨於仁德宮之正殿享年六十三歲在位三年居閑二十年”, 上揭書, 5卷, 18面
15. “丁卯(太祖 18年 7月 19日) 上謂李明德日詣之風疾無藥餌之效浴溫泉理疾雖不見於醫書豫將往浴伊川溫泉以驗如何”, 太宗實錄, 36卷, 10面
16. “乙酉(太宗 18年 8月 8日), 且有宿疾近來尤劇茲轉位于世子, 上正衣冠扶杖移御報平殿”, 上揭書, 36卷, 10面

그리하여 閑居하며 매사냥도 즐기다 世宗 4年 4月 22日 점심식사후 發病,<sup>17)</sup> 5月 1日에는 더욱 위독해져 5月 10日(1422) 昇遐<sup>19)</sup> 하여 天壽 55歲의 생을 마쳤다.

奇異하게도 實錄의 記錄으로 볼 때 太祖, 定宗, 太宗의 三代 父子 모두 高血壓 또는 中樞血管系의 疾患이 있었으리라고 믿어진다.

#### 4. 世宗

世宗은 太宗의 세째 아들로써 太祖 6年 4月 壬辰(1397)에 한양의 준수방에서 태어나 22歲에 卽位(1419), 世宗 32年 2月 17日(1450)에 昇遐하니, 在位 31年 享年 52歲 8個月이었다.

世宗은 45歲때(世宗 24年) 糖尿病의 症狀<sup>20)</sup>으로 消渴症과 關節痛에다 視力障碍를 겹치게 되니 政事를 보살피기 어렵게 되어 世子에게 委任코자 하였던바 있었다. 世宗 27年(1445)에 건강상태는<sup>21)</sup> 더욱 惡化하여 마침내 政事를 世子에게 맡겼다. 糖尿病이 그리하듯 病勢는 惡化一路 드디어 世宗 32年 2月 9日 50名의 僧侶로 하여금 救病精勤케<sup>22)</sup> 하였으나 虛事로 돌아가고 世宗 32年 2月 17日(1450) 永膺大君別宮에서 別世하였다<sup>23)</sup>.

#### 5. 文宗

文宗(恭順大王)은 太宗 14年(1414) 10月 3日 世宗의 長子로서 昭憲王后에서 誕生, 1450年 36歲때 卽位하여 文宗 2年 5月 14日(1452)에 昇遐하니 在位 2年如에 不過하였다. 享年 37歲 7個月.

文宗 2年 5月 3日(1456) 腫氣<sup>24)</sup>가 생겼으나 대단치는 않았고, 8日에 破腫, 膿汁<sup>25)</sup>이 흘러 아프던 것이 좀 난 듯 하였으나, 6日 後인 丙午(5月 14日) 酉時에 숨을 거두니 37歲 7個月의 짧은 一生을<sup>26)</sup> 마쳤다. 11日間의 臥病中 治療는 興天寺<sup>27)</sup>에서 齋를 올리거나 衆臣들의 祈禱, 그리고 十宣散<sup>28)</sup>의 조제에 그쳤다. 膿瘍에서 敗血症으로 惡化되어 死亡한 것이다.

#### 6. 端宗(魯山君)

端宗은 世宗 23年 7月 23日(1441) 文宗 顯德王后의 외아들로 태어나 1453年 12歲의 어린 나이에 王位에 올랐으나, 首陽大君에게 讓位, 魯山君으로 강봉 당하고, 世祖 3年 10月 21日(1457) 叔姪間 骨肉相爭의 犧牲으로 목매어 죽었으니<sup>29)</sup>, 天壽 16歲 3個月 이었다.

17. “戊申(世宗 4年 4月 22日, 1422), 太上王及上觀放鷹于東郊晝停樂天亭太上王還新宮 上還宮卽而太上王不豫”, 世宗實錄, 16卷, 4面

18. “五月丁巳朔(1422. 5. 1), 太上王疾劇 上優懼”, 上揭書, 16卷, 4面

19. “丙寅(1422. 5.10), 太上王薨于新宮春秋五十六”, 上揭書, 16卷, 7面

20. “乙巳(世宗 24年 6月 16日), 近年以來豫患消渴風濕之病, 自溫井沐浴以後消渴豐濕 若 瘳然眼疾轉深因此衆證交攻未能勤於政治, 慙令世子決”, 上揭書, 96卷, 20面

21. “正統十年乙丑世宗以疾不能視事乃命王世子參決庶務”, 文宗實錄, 1卷, 13面

22. “庚寅僧五十于時御所設救病精勤”, 世宗實錄, 127卷, 35面

23. “壬辰(世宗 32年 2月 17日, 1450) 上薨于永膺大君第東別宮”, 上揭書, 127卷, 36面

24. “乙未(文宗 2年 5月 3日, 1452), 豫腫處雖不緊然根深似有成濃之勢”, 文宗實錄, 13卷, 20面

25. “庚子(1452. 5. 8), 上腫處膿汁流出紙針自抽今日始不刺痛”, 上揭書, 13卷, 21面

26. “丙午(5月 14日) 酉時 上薨于康寧殿春秋三十九”, 上揭書, 13卷, 22面

27. “辛丑(5月 9日) 罷興天孔雀齋給僧徒布施有差”, 上揭書, 13卷, 21面

28. “甲辰(5月 12日), 又聞調進十宣散”, 上揭書, 13卷, 22面

29. “辛亥(世祖 3年 11月 21日 1457) 魯山聞之赤自縊而卒禮葬之”, 世祖實錄, 9卷, 26面

## 7. 世祖

世祖는 世宗의 둘째아들로 太宗 17年 9月 丙子日(1417) 昭憲王后 沈氏에서 誕生하였다. 38歲에 卽位(1455. 6. 11)하여 13年間 在位, 1468年 9月 8日 逝去하였다. 享年 51歲.

世祖는 40代 중반부터 症狀未詳으로 慢性未詳<sup>30)</sup>이 歿年(世祖 14年) 5, 6年前부터 있었던 것으로 記錄되어 있다. 그러나 그해 5月 11日 활동에 새벽 2時에 百官을 거느리고 行次<sup>31)</sup>한 것과 發病 1週前인 7月 13日 明나라 使臣 姜玉 등을 전송하려 慕華館에 行次한 점<sup>32)</sup>, 逝去 前날까지 政事에 참여한 점<sup>33)</sup>, 食事, 投藥에 관하여 언급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循環器, 消化器 또는 精神神經系疾患이 아닌 慢性病이 死亡原因 인듯 하나 推定이 매우 어려운 경우이다.

## 8. 睿宗

睿宗은 世宗 32年 正月 1日(1450) 世祖의 둘째아들로 태어나 兄 德宗(追尊)의 死亡으로 世子로 冊封되어 1468年 9月 7日 18歲의 어린 나이로 卽位하였으나, 在位 1年 3個月로(睿宗 元年 11月 28日) 別世하였다. 享年 19歲 11個月.

睿宗은 少年時節부터 발(足)의 病이<sup>35)</sup> 있어 卽位後에도 이로 인해 政事를 보살피기 어려울 정도였다. 卽位 이듬해인 11月 26日 發病<sup>36)37)</sup>이틀후에 死亡하였다.

과연 발(足)의 病이 死因이 될만한 危重한 病이였는지 昭詳한 記錄이 없으니 推定하기가 어렵다.

## 9. 成宗

成宗은 世祖 3年 7月 30日(1457)生으로 德宗(追尊)의 第 2子인데 祖父인 世祖가 宮中에서 養育하였다. 1469年 11月, 12歲로 王位에 올라 成宗 25年 12月 24日(1494) 37歲 4個月에 別世하였다. 그해 12月 20日 배꼽밑에 벌겋고 아픈 덩어리가<sup>38)</sup> 생겨 4日後 內醫는 腫氣<sup>39)</sup>라는 診斷을 내렸는데, 그날 午時에 世上을 뜨고 말았다. 現代醫學으로는 膿瘍의 合併症으로 敗血症이 속발, 死亡한 것으로 判斷된다.

## 10. 燕山君

燕山君은 成宗 7年(1476) 11月 7日 成宗의 長子로 廢妃 尹씨에게서 誕生하여 18歲에 登極, 在位 11年 10個月동안 弊政과 酒色잡기에 빠져 마침내 廢位를 당하고 江華島 喬洞으로

30. “己卯(1468. 7.22) 近日欲傳位之事豫固深知其不何而所以然者豫之病今既五六載矣”, 上揭書, 47卷, 9面

31. “庚午(1468. 5.11) 夜四鼓動駕至洪福山射場百官扈從”, 上揭書, 46卷, 18面

32. “庚午(7月 13日) 辛慕華館餞姜玉金輔玉”, 世祖實錄, 47卷, 6面

33. “丙子(7月 19日) 上不豫趣召高靈君, 議將傳位于世子, 命禱于社稷宗廟名山大川靈異之處”, 上揭書, 47卷, 8面

34. “甲子(1468. 9. 8) 太上王薨于壽康殿正寢”, 上揭書, 47卷, 22面

35. “戊戌(1469.11.18, 睿宗 원년), 豫以足疾久不視事無乃滯事乎”, 睿宗實錄, 8卷, 20面

36. “丙午(1469.11.26) 上不豫悠明”, 上揭書, 8卷, 22面

37. “戊申辰時(1469.11.28) 上薨紫薇堂”, 上揭書, 8卷, 23面

38. “乙巳(成宗 25年 12月 20日, 1494) 傳日齊下積成小塊自去夜消痛色亦微赤”, 成宗實錄, 297卷, 13面

39. “己卯(成宗 29年 12月 24日) 明春日齊下積緊眞是腫氣宜用治腫之藥, 午時上薨于大造殿春秋三十八”, 上揭書, 297卷, 15面

流配당한 지 2個月 後 疾病(現代醫學으로는 콜레라, 장티브스 같은 傳染病)을<sup>40)</sup> 얻어 中宗 1年 11月 6日(1506) 急死하니<sup>41)</sup> 享年 30歲였다.

## 11. 中宗

中宗은 成宗의 제 2子로 成宗 19年(1488)에 태어나 中宗反正으로 燕山君을 廢位하고(燕山君 12年 9月 2日, 1506) 即位하였다. 38年 2個月間 王位에 머물렀으며, 得病하여 中宗 39年 11月 15日(1544) 別世하니<sup>42)</sup> 享年 56歲이었다.

死亡에 이른 發病은<sup>43)</sup> 中宗 39年 11月 22日 로써 腹痛을 主訴로 시작하였는데, 6日後에는 發熱,<sup>44)</sup> 約 20日間の 약석의 效험없이 死亡한다. 症狀은 주로 腹痛과 發熱인데 便秘와 貧尿 등도 記錄되어 있으니, 竊경 腹部臟器의 感染症이 死因일 것으로 생각된다. 約 20日間の 罹病期間中の 治療는 發熱과 便秘에 대한 치료로서 差度가 없어 藥處方도 시시각각 변화무쌍함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蟠葱散, 加味五苓散, 蓖麻子油, 天王補心丹, 參蘇飲, 小紫胡湯, 野人乾水, 梅花湯, 桑枝奔, 涼膈散, 至寶丹, 龍石散, 五味子茶, 美活散, 蘇合元, 井花水<sup>45)</sup> 등이 다.

## 12. 仁宗

仁宗은 中宗의 長男으로서 中宗 10年 2月 (1515)에 태어나 中宗의 別世로 30歲에 即位 (1545. 1) 6個月이란 짧은 在位 끝에 1545年 6월에 그 生涯를 마쳤다. 享年 30歲 4個月이었다.

仁宗誕生 7日 後 그 生母 章敬王后 尹씨는 世上을 뜨고 만다. 中宗 39年 11月(1544) 30歲에 即位, 6個月 後인 仁宗 元年 正月의 實錄은<sup>46)</sup> 玉體가 몹시 야위었는데 이는 마음이 傷한 탓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해 6月에는 20如日 동안 食慾不盡으로 수라(水刺)를 들지 못하였으며,<sup>47)</sup> 때때로 설사(泄瀉)를<sup>48)</sup> 하더니 再發하였으나 危重하지는 않다는 記錄이 있는지 1週日도 채 못되어 猝연 死亡한다<sup>49)</sup>.

實錄에는 治療한 記錄이 별로 없다. 慢性的인 體重減少가 先行되고 또 꾸준히 反復된 泄瀉 등으로 미루어 腸結核이 死因인 듯 推定된다.

## 13. 明宗

明宗은 中宗의 둘째아들로 仁宗의 異腹同生이며, 中宗 38年(1543)에 誕生 2歲에 即位하니 (1545. 7. 6) 그의 生母 文定大妃 尹씨가 攝政

- 
40. “壬午(中宗 元年, 1506.11. 7), 來啓曰喬洞守直將, 燕山君得疫疾甚苦非徒不能飲水亦不開眼云傳曰可救之藥 問于內醫院議議三公遣醫治療”, 中宗實錄, 1卷, 48面
41. “癸未(1506.11. 8), 喬洞守直將, 來啓曰初六日燕山君因疫疾而死鹽死無他語但慾見愼氏”, 上揭書, 1卷, 49面
42. “庚辰(1544.11.15) 酉時, 上薨于歡慶殿小寢”, 上揭書, 105卷, 29面
43. “己丑(中宗 39年 10年 24日), 豫自昨昨有疝證腹痛欲觀勢而議藥”, 上揭書, 105卷, 18面
44. “癸巳(10月 28日), 素有心熱證且兼往來”, 上揭書, 105卷, 20面
45. “乙未, 心熱之藥固爲多矣但天王補心丹與生地黃膏最當, 西果亦治心熱, 且辰砂五苓散亦治心熱”, 上揭書, 105卷, 21~25面
46. “己未(仁宗 元年 1月 25日, 1545), 玉體羸瘠既至於此者必有內傷而然也”, 仁宗實錄, 1卷, 21面
47. “丁卯(1545. 7. 7), 聞大行王(仁宗) 自六月初未寧不進膳二十餘日及至危重”, 明宗實錄, 1卷, 1面
48. “丙辰(1545. 6.25), 豫氣候不甚傷損但頃有痢證于今復發而然也”, 仁宗實錄, 1卷 71面
49. “七月辛酉朔卯時(1545. 7. 1) 上薨于清謙樓小寢”, 上揭書, 2卷, 78面

을 보게 된다.

明宗 22年 24歲때의 實錄에는<sup>50)</sup> 身熱로 손이 떨려 글씨를 쓰지 못할 정도라고도 하고 이 같은 有熱狀態는 십여년전 부터 있어 왔으며, 숨가쁜 症勢<sup>51)</sup>까지 겹쳐져 마침내 明宗 22年 6月 28日<sup>52)</sup>(1567) 逝去한다. 享年 24歲 이었다.

症勢로 미루어 볼 때 肺結核으로 死亡한듯하다. 先王인 仁宗이 30歲에 夭折한 點과 비복 異腹兄弟 이지만 同生은 24歲에 病死한 點 등으로 볼 때 王室에 누군가 개방성 結核患者가 있어 兄弟가 모두 結核에 感染했으리라는 疑心이 든다.

14. 宣祖

宣祖는 中宗의 셋째아들인 德興大院君의 長男으로 明宗 7年 11月 11日(1552)에 漢城 仁達坊에서 태어나 14歲이던 明宗 2年 7月 7日(1567)에 卽位하여 40年 9個月間 王位에 머물었다. 宣祖 41年 2月 1日(1608) 歿하니, 享年 55歲 2個月의 生涯이었다.

壬辰倭亂(宣祖 25年, 1592)을 겪은 후부터 衰弱해져<sup>54)</sup> 삶의 意慾을 잃고, 宣祖 35년부터 健康狀態<sup>55)</sup>가 惡化되고 宣祖 38년에는 關節痛과<sup>56)</sup> 왼손에 약간의 浮氣가 생겨 침도 맞고 藥도 服用했지만 별로 効驗이 없었다. 醫官은 中風으로 診斷<sup>57)</sup>했으나, 宣祖 自身은 명치에 淡熱이 있는 所致로 생각하고 있어 아마도 輕微한 腦出血이나 高血壓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같은 持病은 3, 4年동안 별로 好戰됨이 없이<sup>58)59)60)</sup> 41年 1月 感氣로 그해 2月 1日 別世하였다.<sup>61)</sup> 推測컨데 55歲의 老年期의 呼吸器病, 특히 肺炎이 직접적인 死因이 아니었나 推定된다.

15. 光海君

光海君은 宣祖의 第 3子로서 宣祖 8年(1575)에 태어나 33歲때 宣祖 41年 2月 2日(1608)에 卽位하여 15年 1個月間의 在位 끝에 北人들에 의해 廢位당한 후 濟州島로 流配(1623. 3.13), 그곳에서 1641年 7月 1日, 66歲의 生을 마쳤다. 仁祖實錄에는<sup>62)</sup> 死亡한 史實

---

50. “壬辰(明宗 22年 6月 9日, 1567), 答曰豫氣素有上熱下冷, 而近因日候不調 上熱漸加於常手臂或振不能成字”, 明宗實錄, 34卷, 40面

51. “丁未(6月 24日), 豫素有心熱十有餘年間又似加發, 百病交發亦有喘證近日不安者累日而未易差減”, 上揭書, 34卷, 44面

52. “辛亥(6月 28日), 上養心當大漸, 中殿傳于浚慶等曰 上素有心熱故常患熱證而前則不如此甚也今至於此罔極”, 上揭書, 34卷, 48面

53. “丑時(6月 28日), 上薨于景福宮養心當”, 上揭書 34卷, 49面

54. “壬申(宣祖 39年 1月 3日), 上答曰患難之餘衰病浸壽只願辛不得罪以保餘年耳”, 宣祖實錄, 195卷, 3面

55. “乙酉(宣祖 38年 9月 14日), 自上玉候違豫三年調攝之余賴天地 祖宗春佑冥冥之中乃見平復”, 上揭書, 191卷, 6面

56. “癸酉(11月 3日), 柳永慶曰聖體若何治風濕之藥頃日進御卽見效乎 上曰浮氣時或有之左手甚於右手冬前但當服藥而已待春暖鍼灸爲計”, 上揭書, 193卷, 3面

57. “己巳(宣祖 40年 10月 10日, 1607) 醫官等以爲風證臆度瞞間必有痰熱”, 上揭書, 217卷, 4面

58. “壬寅(宣祖 40年 11月 13日), 自上進藥將到一年尙未平復”, 上揭書, 218卷, 3面

59. “甲午(宣祖 40年 9月 4日) 巳時末 上以便服於寢室 受鍼”, 上揭書, 216卷, 3面

60. “乙未(宣祖 41年 1月 7日, 1608), 元證無加減感冒之證卽畿盡差歇”, 上揭書, 220卷, 3面

61. “三月朔戊午, 諸大臣皆 而出我而哭聲自內達外諸大身及在闕庭者皆慟哭”, 上揭書, 221卷, 1面

만 간략하게 記載되어 있을 뿐이라 그 死因을 推測할 한가닥의 실마리도 없는 것이 아쉽다.

## 16. 仁祖

仁祖는 宣祖 28年(1595) 11月 7日 宣祖의 第 6子인 元宗(追尊)의 莊子로 태어났다. 光海君 15年(1623) 仁祖反正으로 그해 3月 15日에 光海君을 廢位하고 28歲에 卽位하여 26年 2個月의 在位끝에 仁祖 27年 5月 13日(1649)에 別世하였다. 享年 53歲 5個月.

仁祖의 死因은 實錄에<sup>62)</sup> 의하면 壬申 仁祖 10年(1632) 仁穆大妃가 逝去한 後 哀悼, 思慕하든 중에 憂鬱症과 같은 症勢가 17年이나 繼續된데 겹쳐서 神經痛이 併發, 仁祖 26年 겨울에는 잠시 好轉한듯 하다가 仁祖 27年 5월에 逝去한다. 憂鬱症이 직접적인 死亡原因이라고는 믿기 어려우며, 原因未詳의 慢性消耗性疾患으로 死亡한듯 하다.

## 17. 孝宗

孝宗은 光海君 11年(1619)에 仁祖의 第 2子로 태어나 仁祖 27年 5月的 仁祖 逝去에 이어 30歲에 卽位하여 10年間 在位, 得病하여 40歲의 나이로 孝宗 10年 5月 4日(1659)에 別世하

였다.

死因은<sup>64)65)</sup> 頭部에 생긴 腫氣가 惡化되어 敗血症으로 死亡한듯 하나 腫氣部位에 침을 맞은 구멍에서 계속 出血<sup>66)</sup>, 止血이 不可能했다하니 失血도 死亡의 素因이 되었을 可能性도 있는 것이다.

## 18. 顯宗

顯宗은 仁祖 19年 2月 己酉生(1641)이며, 孝宗의 長男으로 태어났다. 父王 孝宗의 逝去로 孝宗 19年 5月(1659) 18歲에 卽位, 15年 3個月後 得病하여 顯宗 15年 8月 18日(1674) 逝去하니, 享年 33歲 6個月이다.

死亡原因은 顯宗 15年 8月 1日 腹痛<sup>67)</sup>으로 發病, 高熱과<sup>68)</sup> 泄瀉로<sup>69)</sup> 藥石의<sup>70)71)</sup> 効驗도 보지 못하고 死亡하니, 痲疹 콜레라, 腸티브스, 또는 赤痢와 같은 腸의 傳染病으로 死亡한 것으로 推定된다.

## 19. 肅宗

肅宗은 顯宗의 長者로 顯宗 2年 8月 15日(1661)에 誕生, 顯宗의 昇遐로 顯宗 15年 8月 23日(1674) 13歲의 나이로 卽位, 45年 10個月간의 治績을 남기고 肅宗 46年 6月 8日(1720)

62. “甲申(仁祖 19年 7月 1日) 光海君以是月初一日乙亥卒于濟州園內年五十七”, 仁祖實錄, 42卷, 26面

63. “王自壬申居憂思慕老悖爲崇添得寒濕之症展轉沈綿 十有七載至戊子冬後六七朔間疾頗良己頻接廷臣”, 仁祖實錄, 50卷, 37面

64. “丁巳 上患髮上小腫藥房入診議藥以進, 腫候轉劇勢甚重”, 孝宗實錄, 21卷, 43面

65. “戊午藥房入診腫毒遍于 面部不能開眼”, 上揭書, 21卷, 43面

66. “甲子(孝宗 10年 5月) 上昇遐于大造殿, 上已受鍼血出鍼穴, 血湧不止蓋鍼犯血路, 猶不止提調及醫官等罔知所爲 上候漸向危急”, 上揭書, 21卷, 43面

67. “八月壬辰朔, 上將幸敬思殿朔祭因腹痛不差藥局有請乃 命攝行”, 顯宗實錄, 22卷, 42面

68. “己(8月 4日), 上滿身烘熱達夜煩惱”, 上揭書, 22卷, 43面

69. “戊申 上候一向危急, 昨今來泄證少減耶 上曰不知其減也”, 上揭書, 22卷, 43面

70. “庚子卯時 上受鍼, 乙巳 上尤不豫辰時入診, 紫苓湯乃是當劑連服則可收效也”, 上揭書, 22卷, 45面

71. “己酉 上疾大漸是夜 時承遐于昌德宮齊廬”, 上揭書, 22卷, 45面

逝去하니 享年 58歲 9個月 이었다.

肅宗의 病歷은 오랜 세월동안의 持病<sup>72)</sup>으로 歿年 2年前인 肅宗 44年 3月 世子嬪이 別世한 때에도 親히 참여하지 못하여 傷心하였으며, 그해 世子가 再婚을 하는데 失明<sup>73)</sup>으로 新婦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肅宗의 모습에 宮中 모두가 눈물을 禁치 못하였다고 하며, 死亡 1週 日前에는 昏睡狀態가<sup>74)</sup> 계속한 점으로 미루어 腎臟 糖尿病이 惡化하여 死亡한<sup>75)</sup> 것으로 推定된다.

## 20. 景宗

景宗은 肅宗의 長子로서 張禧嬪을 그 生母로 肅宗 14年(1688)에 誕生, 肅宗의 逝去로 1720年 6月 13日에 32歲로 登極하였으나, 4年 2個月 在位끝에 得病하여 景宗 4年 8月 25日(1724) 昇遐하였다. 享年 36歲 이었다.

景宗은 東宮時節부터 生母 張禧嬪의 悲劇적인 죽음과 辛壬黨禍로 老論의 4大臣을 위시한 수백명의 反叛陰謀로 죽어간 黨爭의 처참함을 몸소 보아왔다. 李는<sup>76)</sup> 心火病으로 在位 4年 만에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直接死因

은 神經衰弱症이나 憂鬱症보다는 景宗 4年 7月初에 發病<sup>77)</sup> 食慾不盡과 高熱이<sup>78)</sup> 계속한 끝에 昏睡狀態에 빠져 마침내 死亡한<sup>79)</sup> 것으로 볼 때 일종의 傳染性疾患으로 死亡한 것으로 看做함이 온당하다고 생각된다.

## 21. 英祖

英祖는 景宗의 異腹同生이며, 肅宗의 第 2子로서 淑嬪 崔씨의 所生으로 肅宗 20年 9月 13日에(1694) 태어났다. 景宗의 昇遐로 1724年에 30歲의 나이로 卽位, 51年 6個月이라는 李王朝 治世중 最長의 在位와 81歲 6個月의 最長의 天壽를 마치고 英祖 52年 3月 5日(1776) 昇遐한다.<sup>80)</sup>

英祖의 死亡原因은 83歲의 老齡으로 1776年 3月 3日 發病하여<sup>81)</sup> 眩氣症, 痰, 기침, 그리고 呼吸困難 등의 合併症<sup>82)</sup>으로 미루어 보아 腎臟 肺炎이 直接死因인 것으로 推定된다.

## 22. 正祖

正祖는 英祖 28年 9月 22日(1752) 昌慶宮

72. “乙卯(肅宗 44年 3月 6日) 上下教曰豫疾積年沈痾今次世子嬪初喪險殯不得親泣益愴心曲”, 肅宗實錄, 61卷, 17面
73. “壬辰, 豫目疾如此雖慾見新婦之面何可得也仍凄然是日宮中莫不揮涕”, 上揭書, 62卷, 22面
74. “六月朔丙甲(46年 6月 1日) 侍藥廳入診 上候諸證益甚諸臣奏語太半不省問或微答多不能了”, 上揭書, 65卷, 14面
75. “癸卯(肅宗 46年 6月 8日) 上昇遐”, 上揭書, 65卷, 15面
76. 李載浩, 景宗實錄, 1988
77. “辛酉(景宗 4年 7月 20日, 1724) 上有疾不豫藥房連日問安”, 景宗實錄, 15卷, 5面
78. “壬申(8月 2日) 上疾連日彌留厭進水刺至是于有寒熱候, 自在東宮積憂畏遂成難狀之疾歷歲沈痾火熱上昇有時昏迷, 上雖體膺外旺而脾胃內虛厭膳日久遂發熱之症”, 上揭書, 15卷, 5面
79. “乙未(8月 25日), 丑刻 上昇遐于環翠亭”, 上揭書, 15卷, 8面
80. “丙子卯時(英祖 52年 3月 5日) 上昇遐慶熙宮集慶堂”, 英祖實錄, 127卷, 26面
81. “甲戌(3月 3日) 藥局封入柱橋茶一貼 上御集慶堂”, 上揭書, 127卷, 24面
82. “藥房入診柱橋茶加一付子一錢煎入 上眩候又作始就寢移時候問微有痰響氣道喘促王世孫泣謂殷曰近日 聖候痰眩添劇喘氣又發譫語等症候萬萬罔措, 今日卿等入侍使醫官診察股胃診候 上不答戌時, 自夕後痰眩之候益添眼胞開睫肢末寒溫異於當時試進薰橋茶數匙即以有溫氣旋復還冷焦迫罔措”, 上揭書, 127卷, 24面



景春殿에서 誕生, 英祖 52年 3月 10日(1776) 23歲의 나이로 卽位, 在位 24年 3個月이 되던 正祖 25年 6月 28日(1800)에 昇遐 하였다. 享年 47歲 9個月이다.

正祖의 直接死因은 正祖 25年 6月頃 가슴과 등에 腫氣<sup>83)</sup>가 줄다러 나고 머리부분에도 생겨 膏藥 등으로 治療하였으나 급기야 發熱<sup>84)</sup>惡化하였다. 疔瘡 敗血症으로 發展, 死亡한<sup>85)</sup> 것으로 믿어진다.

### 23. 純祖

純祖는 正祖 14年 6月 18日(1790) 昌德宮內 集福軒에서 태어 나셨다. 先王의 昇遐로 正祖 24年 7月 4日(1800) 창덕궁의 仁政殿에서 10살의 어린 나이로 卽位하여 34年 4個月間 在位, 得病하여 44歲 5個月의 一生을 마쳤다. 때는 純祖 34年 11月(1834) 이었다.

純祖는 純祖 34年 11月 1日 腫氣<sup>86)</sup>가 下肢에<sup>87)</sup> 생겨 先王과도 흡사하게 敗血症으로 死亡<sup>88)</sup> 한듯 하다.

### 24. 憲宗

憲宗은 純祖 27年 7月 18日(1827) 王世孫으로 태어나 純祖가 昇遐한 純祖 34年 11月 18日(1834) 7歲 4個月의 幼年으로 寶位에 올라 14年 6個月의 治績을 남기고 憲宗 15年 6月 6日(1849) 昇遐하니 享年 21歲 11個月의 一生을 마쳤다.

憲宗의 病歷은 소한 記錄이 없으나 憲宗 15년 봄 顏色이 초취하고 윤기가 없었다는 記述이 당시 都提調이었던 權敦仁<sup>89)</sup>의 記錄이 있고, 憲宗 自身은 滯氣가 있을 뿐 별탈이 없다고 하였으나 그 후 顔面의 浮腫이 있다는 所見만이 典醫의 報告<sup>90)</sup>인데 이로 부터 몇일 경과 후 死亡<sup>91)</sup>하여 死因의 斷定이 어려우나 心臟 또는 腎臟疾患이 死因이 아닌가 推定된다.

### 25. 哲宗

江華도령 李元範은 王族 恩彦君의 孫子로서 純祖 31年 6月 17日(1831) 慶幸坊 私第에서 태어났다. 祖父가 逆賊으로 몰려 天涯孤兒가 된 元範은 江華섬에서 숨어 살다 憲宗의 死去로 憲宗 15年 6月 9日(1849) 18歲의 나이로 一字無識의 農夫가 王位에 올랐다. 在位 14年

83. “乙丑(正祖 25年 6月, 1800), 上自是胸前有獅候連進傳貼之劑久未奏效召見內醫院, 上曰背部又有似瘤處今畿數十日, 上曰頭部不大段而背部則方慾成腫且有上氣薰熱之症矣”, 正祖實錄, 54卷, 54-55面
84. “壬申(6月) 召見藥院諸臣, 上曰浮高牽痛則一樣作苦而症候則寒熱之外神氣有時昏沈不辨夢覺矣”, 上揭書, 54卷, 57面
85. “己卯(6月 28日), 上曰罷漏後稍得成眠矣 上御迎春軒, 是日酉時上昇遐于昌德宮之迎春軒”, 上揭書, 54卷, 63面
86. “十一月壬戌朔(純祖 34年 11月 1日, 1834), 上候以腫患缺寧命傳貼蕎麥餅”, 純祖實錄, 34卷, 20-21面
87. “己巳, 脚部連用漸爲便利乎 上曰不得便利矣”, 上揭書, 34卷, 21面
88. “甲戌, 上大漸 命大寶傳于 王世孫, 亥時, 上昇遐于慶熙宮之會祥殿”, 上揭書, 34卷, 21面
89. “戊申(憲宗 15年 4月 10日, 1849) 行藥院入診于重熙堂都提調權敦仁曰, 今時登筵仰瞻天顏則玉色庚敗色澤燥澁, 上曰今番所苦始以滯氣爲崇別無他證”, 憲宗實錄, 1卷, 2面
90. “庚戌, 近聞入診醫官所傳之言則面部上有浮候云矣, 上曰大小便頗便利但有微浮之氣而姑未決勝矣”, 上揭書, 1卷, 4面
91. “六月丁卯(6月 6日), 辛未命藥院輪直 壬申藥院請診, 上大漸年時上昇遐于昌德宮重熙堂”, 上揭書, 1卷
92. “甲寅(哲宗 14年 7月, 1863) 藥院入診于熙政堂”, 哲宗實錄, 15卷, 8面

6個月이 되던 哲宗 14年 12月 8日(1863) 逝去하니 享年 32歲 5個月이었다.

實錄의 記錄으로는 發病<sup>92)</sup>은 1863年 7月이며, 그 후 종종 典醫의 診察한 史實만 記錄되었을 뿐 症勢나 病勢의 推移에 관해서는 一節言及이 없어 發病부터 死亡까지 5個月이란 비교적 慢性疾患이라는 推測만이 可能하다.

## II. 王들의 平均壽命과 死因의 類型

太祖에서 哲宗에 이르는 朝鮮朝 王들의 平均壽命은 44.6歲에 不過하였다(表1 참조).

通例上的 平均壽命이라는 概念은 新生兒, 嬰兒, 乳兒 등 짧은 壽命도 加算한 年후의 平均이다. 현재 우리의 平均壽命은 70歲를 前後하게 되었다.

王들은 가장 良質의 保健環境에서 生活했으리라고 믿어지지만 현재의 壽命과는 顯激한 差異가 있음은 현재는 細菌性感染症은 抗生劑의 出現으로 主要 死因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데 反해, 朝鮮朝의 可恐할 疾病은 腫氣에 뒤따른

敗血症으로 文宗, 成宗, 孝宗은 30代에, 正祖, 純祖도 40代 壯年期를 넘지 못했던 그들의 死因이었다.

또 疫學에 관한 知識이 미흡하여 傳染病에 대한 防疫對策이 殆無했던 탓으로 燕山君, 顯宗, 景宗 등은 熱病에 쓰러졌으리라 推定된다(表2 참조). 당시 疫疾은 人口數를 삼시간에 激減시킨 不治의 天刑이었다.

開國初 半世期는 建國精神과 바른 紀綱으로 4代 世祖까지는 모두 50代, 60代, 그리고 70代의 壽命을 維持하였으나, 8代 祖부터 13代 明宗에 이르는 朝鮮中期의 諸王은 中宗을 예외로 모두 30代에 夭折하였다.

具塚은<sup>96)</sup> 중국 後漢皇帝의 壽命은 중흥의 英雄 光武帝가 62歲의 天壽를 누리 후 和平時代에 태어난 明帝, 章帝 또 그 後王들은 모두 30代에 죽은 史實을 가리켜 中國王朝의 宮中生活의 缺點에 따른 王孫의 生命力的 衰退를 象徵한 것으로 說明한 바 朝鮮中期 諸王의 短命함도 같은 맥락에서 理解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93. “戊寅(10月) 同文”, 上揭書, 15卷, 10面

94. “戊戌(10月) 同文”, 上揭書, 15卷, 11面

95. “庚辰(12月 8日) 命直宿爲之, 移藥院于司饗院爲侍藥廳 上大漸, 卯時上昇遐于昌德宮之大造殿”, 上揭書

96. 具塚茂樹, 中國の歴史, 上, 199, 岩波書店, 1987

表1. 朝鮮朝王의 壽命 分布

壽命 (滿年齡)	王數	王名(歲, 個月)	百分率
15-19	2	端宗(16.3), 睿宗(19.11)	
20-24	2	憲宗(21.11), 明宗(24.0)	
25-29	—		16%
30-34	4	燕山君(30.0), 仁宗(30.4), 哲宗(32.5), 顯宗(33.6)	
35-39	3	景宗(36.0), 成宗(37.4), 文宗(37.7)	28%
40-44	2	孝宗(40.0), 純祖(44.5)	
45-49	1	正祖(47.9)	12%
50-54	3	世祖(51.0), 世宗(52.8), 仁祖(53.5)	
55-59	4	太宗(55.0), 宣祖(55.2), 中宗(56.0), 肅宗(59.0)	28%
60-64	1	定宗(62.3)	
65-69	1	光海君(66.0)	8%
70-74	1	太祖(72.7)	
75-79	—		4%
80-84	1	英祖(81.6)	3%
計	25		100%

表2. 朝鮮朝 歷代王의 死因分類

死因	王名
腦出血(中風)	太祖, 定宗, 太宗
糖尿病	世宗, 肅宗
細菌性感染症	
消化器系	中宗
肺炎	宣祖, 英祖
敗血症(腫氣)	文宗, 成宗, 孝宗, 正祖, 純祖
傳染病	燕山君, 顯宗, 景宗
自殺	端宗
不明	
慢性疾患	世祖, 仁祖
結核疑症	仁宗, 明宗
其他	睿宗(足病), 光海君, 憲宗, 哲宗

(Summary in English)

## Longevity of Kings and their Causes of Death during Yi Dynasty – Based on Review of Historic Royal Archives –

Sung-Bong Hong  
(Korea University)

Improvements in various health indices have been ushered in, along with soaring economic growth in the last few decades in Korea. Life span of Koreans at present stands at somewhere around age of seventies.

It seems of worth to elucidate some facets of health profile of historic Koreans during Yi dynasty encompassing about five hundreds years between the 14th and 19th century. Datas on health of historic Koreans are meager with exception for sovereigns for whom royal archives have been preserved intact through centuries. Though the health enviroments for monarchs are, no doubt, incomparable to that of the grassroot levels during the same period, health profile of monarchs would facilitate to assess health indices for historic Koreans during Yi dynasty.

Arithmetic average of life span of 25 consecutive Kings(omitted the last two Kings under Japanese control) is 44.6 years of age, 81 year old for King Yongjo and 16 year old for King Danjong, representing two extremes. The principal causes of death are septicemia, subsequent to infections of soft tissues and other organs(8 in number, one-thirds of all). Secondly, both epidemic disease and vascular accidents caused deaths of three Kings each. Two kings succumbed to diabets and one suicide. The causes for the remainder, eight kings are hardly clarified. The monarchs who contributed in establishment of new Yi dynasty with highspirited and disciplined survied beyond their fifties and sixties. In contrast, those who reigned during mid-era of the dynasty at its culmination succumbed to death in their young adulthood, most likely due to their indulgence in court life.